

이란 가스전 프로젝트를 잡아라!

11-25단계 180억-200억달러 투자 ... Assaluyeh 석유화학과 연결

중동 페르시아만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저 가스전 South Pars 프로젝트에 국내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가 발주하는 1-25단계 사우스파 가스처리시설의 전체 사업규모는 250억-270억달러로 70억달러가 투입되는 1-10단계 사업에는 이미 국내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앞으로 발주될 11-25단계(180억-200억달러) 사업에도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가스처리 산업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4월16일(현지시간) 이란의 소도시 Assaluyeh에서 열린 현대건설의 사우스파 가스 처리시설 4·5단계 준공식에 참석한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과 비잔 남 다르 장가네 석유부 장관 등 이란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이 지송 현대건설 사장과 잇따라 면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발주된 1-10단계 공사는 △1단계 대림산업·삼성중공업 △2·3단계와 4·5단계 현대건설 △6·7·8단계 대림산업 △9·10단계 GS건설이 현지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1-5단계는 이미 완공됐으며 6-10단계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Assaluyeh의 400만-500만평에 25단계에 걸쳐 사우스파 가스처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준공한 사우스파 가스처리시설 4·5단계 공사는 단일공사로 완공된 플랜트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가스처리 공장이다.

공사비로 16억달러가 투입됐고 Assaluyeh 남서쪽 105km에 위치한 해저 가스전 사우스파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옮겨진 천연가스 혼합물을 처리·정제하는 설비이다.

<화학저널 2005/04/20>